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오쿠사레 신’의 목욕재계 과정에 나타난 신화적 요소

- 『고사기』 이자나기노미코토의 ‘미소기(禊)’ 전승의 관점에서-

박 신 영*

(e-mail : psy225@hanmail.net)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
| 1.1. 연구 목적 및 방법 | 3.1 오쿠사레 신의 등장 |
| 2. 『고사기』의 미소기(禊) | 3.2 오쿠사레 신 에피소드와 이자나기의 ‘미소기’
전승과의 유사성 |
| 2.1. 이자나기의 미소기 | 3.3 오쿠사레 신의 ‘게가레’ |
| 2.2. 『고사기』에 등장하는 미소기 전승 | 4. 나가며 |
| 3.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오쿠사레 신과
『고사기』의 이자나기 전승에서의 ‘미소기’ | |

키워드 : 神話(Mythology), 애니메이션(Animation), 文化(Culture), 지브리(Ghibli), 禊(Misogi)

1. 들어가며

한국에서의 지브리스튜디오에 대한 인기는 애니메이션 흥행이나 캐릭터 인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12월 5일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 '스튜디오지브리 대박람회'가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3월2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큰 호평을 받으며 3월 4일까지로 이를 연장된 것만 보더라도 지브리스튜디오에 대한 인기는 지금도 그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브리스튜디오의 작품 중 2001년 개봉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2002년 베를린영화제에서 금곰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듬해에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하는

*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 前강사, 일본고전산문

등 세계적으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이다. 한국에서도 2002년 개봉된 이래 지금까지도 그 인기는 이어지고 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이 작품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면 (1) 현대사회에서의 현상을 반영한 해석¹⁾ (2) 서사구조에 대한 한국 작품과의 비교²⁾ (3) 세계적인 인기의 원동력이 된 보편성에 대한 분석³⁾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오쿠사레 신에 대해서는 현대의 오염문제와 연관 지은 설명이 보이는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배경이 되는 테마파크의 잔해는 폐기 사회의 상징이며, 오쿠사레 신의 탄생 장소라고 설명하며, 오쿠사레 신이 유아를 방문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해석⁴⁾한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는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 무대가 신들이 찾은 온천인 점 등 일본의 신과 관련되어 보이는 요소가 상당수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신화·전승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보기는 어렵다. 간혹 애니메이션 작품 분석에서 이 장면은 일본의 어떤 전승과 비슷하다 정도의 간략한 기술 정도가 보이기는 하나 본격적인 내용 분석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본에서 출판된 책에 수록된 논고로는 김영심⁵⁾의 「고묘(光明)황후의 세속설화」와의 유사성에 대한 분석이 있다. 신화적 관점에서 접근한 저서⁶⁾도 있으나, 주로 타계와 관련지은 논고에 머물러 있다.

1.1 연구 목적 및 방법

신들의 세계를 배경으로 다양한 신들이 등장하는 것만 봐도 막연히 신화·

1) 이혜선(2006)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 채움에서 비움으로-」 『공연과 리뷰』 55, 현대미술사, pp.229-232.

안중혁(2004) 「애니메이션에 나타나는 신화적 기능 :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千と千尋の神隠し) 중심으로」 『디지털영상학술지』 1호, 한국디지털영상학회, pp.215-230.

2) 김정희(2014) 「설화 <구복여행>과의 비교를 통해 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치히로의 성장과 그 의미」 『문학치료연구』 제33집, 한국문학치료학회, pp.229-267.

3) 표정희, 이태구(2016)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다원적 해석」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pp.81-104.

4) 西条勉(2009) 『千と千尋の神話学』 pp.72-75, 新典社

5) 金榮心(2008) 「韓国から見る『千と千尋の神隠し』 - 「日本のな想像力」と「第二のジャポニスム」-」 『ジブリの森へ-高畑勲・宮崎駿を読む[増補版]』 (米村みゆき編)、森談社、pp.88-121.

6) 西条勉(2009) 『千と千尋の神話学』 新典社

전승과 같은 고전과의 연관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고전 작품과의 스토리 유사성만을 살펴보는 의미가 없다. 구체적인 신화적 요소를 도출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신화적 요소가 고전 작품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문화, 더 나아가 현대 사회로 확대해서 그 변용양상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중에서 먼저 오쿠사레 신의 에피소드를 통해 연상되는 ‘미소기’와 미소기의 전제조건이 되는 ‘게가레(穢れ)’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작품 전체를 통틀어서는 보다 다양한 신화적 요소가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우선 ‘미소기’라는 관점에서의 분석을 통해 미소기라고 하는 일본의 신화적 요소가 현대 애니메이션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밝힐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오쿠사레 신 에피소드 장면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고사기』에 나타나는 미소기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특히 미소기의 과정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이자나기노미코토(伊耶那伎命)⁷⁾의 미소기 전승의 구조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미소기’라는 행위 전후의 주요 요소에 대해 정리한다. 이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오쿠사레 신 에피소드의 구조와 비교하여, 오쿠사레 신 에피소드에서 읽어낼 수 있는 신화적 요소에 대해 분석하여 애니메이션 안에서 미소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재생산 되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처럼 전승 즉 고전에서 단계별로 신화적 요소에 대해 분석하고, 현대 문화 콘텐츠 속에 나타난 신화적 요소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은 향후 다양한 콘텐츠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고전에 대한 더욱 폭넓은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사기』의 미소기(禊)

2.1 이자나기의 미소기

『고사기』에서 미소기 전승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자나기의 황천국(黃泉國) 방문 전승이다. 불의 신을 낳다가 입은 화상으로 인해 황천국으로 타

7) 『고사기』 상권과 『일본서기』 신대권에 이자나미노미코토와 함께 등장하여 국토와 신들을 생성한다. 이하 이자나기

제한 이자나미노미코토(伊耶那美命)⁸⁾를 그리워하던 이자나기는 황천국으로 가는데, 이미 그 세계의 음식을 먹은 이자나미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도 요모쓰카미(黃泉神)에게 한 번 상의해 볼 테니 그동안 절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라고 당부하지만, 이자나기는 기다리지 못하고 이자나미의 모습을 본 후 놀라 도망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렇게 황천국에서 돌아온 이자나기는 더러운 나라에 다녀왔다고 하며 몸을 씻는데 그것이 바로 미소기이다. 『고사기』에 나타나는 이자나기의 미소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리하여 이자나기大神(伊耶那伎大神)이 말하기를, “나는 아주 추하고 더러운 나라에 다녀왔다. 그러니, 나는 몸의 미소기(禊)를 하겠다”라며, 쓰쿠시(쓰쿠시)의 히무카(日向) 타치바나노오토(橘小門) 아하키하라(阿波岐原)에 이르러 미소기하라이(禊祓)를 하였다. (중략) 이에 말하기를, “상류는 물살이 빠르다. 하류는 물살이 약하다”라며, 처음으로 중류에 떨어지듯 들어가 물로 씻을 때 생겨난 신의 이름은 야소마가쓰히神(八十禍津日神), 다음으로 오마가쓰히神(大禍津日神)이다. 이 2신은 그 더러운 나라에 이르렀을 때의 계가레로 인해 생겨난 신이다. 다음으로 그 화(禍)를 바로잡기 위해 생겨난 신의 이름은 가무나호비神(神直毘神), 다음으로 오나호비神(大直毘神), 다음으로 이즈노메(伊豆能売)이다. 모두 3신이다. 다음으로 물밑에서 씻을 때 생겨난 신의 이름은 소코쓰와타쓰미神(底津綿津見神), 다음으로 소코쓰쓰노오命(底筒之男命)이다. 중간에서 씻을 때 생겨난 신의 이름은 나카쓰와타쓰미神(中津綿津見神), 다음으로 나카쓰쓰노오命(中筒之男命)이다. 물 위에서 씻을 때 생겨난 신의 이름은 우하쓰와타쓰미神(上津綿津見神), 다음으로 우하쓰쓰노오命(上筒之男命)이다. 이 세 분의 와타쓰미神는 아즈미노무라지(阿曇連)들이 조상신으로 받들어 모시는 신이다. 그리고 아즈미노무라지들은 그 와타쓰미神의 자식인 우쓰시히카나사쿠命(宇都志日金析命)의 자손이다. 그 소코쓰쓰노오命·나카쓰쓰노오命·우하쓰쓰노오命 3신은 스미노에(墨江)의 세 분의大神이다. 이에 왼쪽 눈을 씻을 때 생겨난 신의 이름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御神)이다. 다음으로 오른쪽 눈을 씻을 때 생겨난 신의 이름은 쓰쿠요미命(月詠命)이다. 다음으로 코를 씻을 때 생겨난 신의 이름은 다케하야스사노오命(建速須佐之男命)이다. 이상 앞에서 말한 야소마가쓰히神 이하 하야스사노오命 이전의 10신은 몸을 물로 씻음으로 인해 생겨난 신이다. ⁹⁾

8) 『고사기』 상권과 『일본서기』 신대권에 이자나기노미코토와 함께 등장하여 국토와 신들을 생성하는데, 『고사기』에서는 불을 신을 낳던 중 읍부를 데어 타계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고사기』에서는 이자나미의 타계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자나기가 미소기를 행하기에 이르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하 이자나미

위의 전승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자나기의 미소기 행위로 인해 다양한 신들이 생성되는데, 생성된 신들의 성격에 따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황천국 방문으로 인한 ‘게가레’에 의해 생겨난 신

八十禍津日神 · 大禍津日神

② 그 화(禍)를 바로잡기 위해 생겨난 신

神直毘神 · 大直毘神 · 伊豆能売

③ 와타쓰미 3신 / 쓰쓰노오 3신

底津綿津見神 · 中津綿津見神 · 上津綿津見神

底筒之男命 · 中筒之男命 · 上筒之男命

④ 삼귀자

天照大御神 · 月詠命 · 建速須佐之男命

이자나기의 미소기 전승에서 ‘미소기’ 과정 중 특히 물에 씻음으로 인해 먼저 황천국 방문으로 인한 ‘게가레’에 의해 생겨난 신들이 생성되고, 다음으로 그 화(禍)를 바로잡기 위해 생겨난 신들이 생성된다. 여기까지는 황천국의 게가레로 인한 것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신들이다. 다음으로 생성되는 것이 와타쓰미 3신과 쓰쓰노오 3신은 바다·항해와 연관이 깊은 신들로 앞서 생성된 신들에 비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성되는 것이 바로 삼귀자라 불리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御神)·쓰쿠요미노미코토(月詠命)·다케하야스사노오노미코토(建速須佐之男命)이다. 삼귀자가 생성되자 기뻐한 이자나기는 각각 다스릴 세계를 나누어주는 등 삼귀자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미소기의 과정에는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해 가는 구조가 담겨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2 『고사기』에 등장하는 미소기 전승

『고사기』에는 이자나기의 미소기 전승 이외에도 두 번의 미소기가 더 등장한다. 한 번은 중권의 주아이(仲哀) 천황기에서, 또 한 번은 하권의 리츄(履中) 천황기에서 등장한다. 주아이(仲哀) 천황기 전승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青木和夫 외(1983), 『日本思想大系1 古事記』, pp.36-41, 岩波書店

번역문은 박신영 박사학위 논문에서 인용함 (『『古事記』 및 『日本書紀』에 나타난 바다와 미소기(禊)』 (2017), pp.27-28, 경희대학교)

· 『고사기』 중권 : 주아이천황의 ‘禊’

한편 오키나가타라시히메노미코토(息長帶日売命)가 야마토(倭)로 돌아갈 때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상여(喪輿)배 하나를 갖추어 태자를 그 배에 태우고 먼저 ‘태자는 이미 죽었다’라는 말을 세어나가게 했다. 이처럼 행차할 때 가고사카노오키미(香坂王)·오시쿠마노오키미(忍熊王)가 듣고 기다렸다가 잡으려고 생각하여 도가노(斗賀野)에 나아가 우케이가리(宇氣比獵)¹⁰⁾를 하였다. (중략) 이에 다케우치노스쿠네노미코토(建内宿禰命)는 그 태자를 데리고 禊를 하기 위하여 오미(淡海)와 와카사노쿠니(若狹国)를 지날 때 고시노미치노쿠치(高志前)의 쓰누가(角鹿)에 임시 궁을 만들어 지냈다.¹¹⁾

다음으로는 하권의 리츄(履中) 천황기에서 등장하는데, 스미노에노나카쓰오키미(墨江中王)가 천황을 죽이고자 불을 지르자, 천황이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내용이다. 그 과정에서 살인을 하게 되고, 신궁 참배에 앞서 미소기를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 『고사기』 하권 : 리츄천황기(履中天皇記)의 ‘祓禊’

(전략) 거기에 동복 동생인 미즈하와케노미코토(水齒別命)가 찾아와 뵈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천황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도 혹시 스미노에노나카쓰오키미(墨江中王)와 같은 마음일까 의심스럽다.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답하여 말하기를 “저는 더럽고 나쁜 마음이 없습니다. 또 스미노에노나카쓰오키미(墨江中王)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또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지금 돌아가서 스미노에노나카쓰오키미(墨江中王)를 죽이고 오라. 그 때 나는 반드시 만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즉시 나니와(難波)로 돌아가 스미노에노나카쓰오키미(墨江中王)의 측근인 하야토(隼人)족 이름은 소바카리(曾婆加理)를 속여 말하기를 “만일 네가 나의 말을 따른다면 나는 천황이 될 것이고, 너를 대신으로 만들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였다. 소바카리(曾婆加理)가 답하여 말하기를 “명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녹봉을 그 하야토에게 하사하고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의 왕을 죽여라.”라고 하였다. 이에 소바카리는 자신의 왕이 변

10) 사냥의 결과에 따라 잡치는 것.

11) 青木和夫 외(1983), 『日本思想大系1 古事記』, pp.200-203, 岩波書店
번역문은 박신영 박사학위 논문에서 인용함 (『『古事記』 및 『日本書紀』에 나타난 바다와 미소기(禊)』 (2017), pp.138-139, 경희대학교)

소에 들어가 있을 때 창으로 찢려 죽었다. (중략) 이에 그 하야토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대신과 같은 잔으로 술을 마시겠노라.”라고 하시고, 함께 마실 때, 얼굴을 가릴 만큼의 큰 술잔에 술을 가득 부었다. 이에 왕자가 먼저 마시고 하야토가 나중에 마셨다. 그 하야토가 마실 때 큰 술잔이 얼굴을 덮었다. 이에 자리 아래에 두었던 칼을 꺼내어 하야토의 목을 치고, 다음날 상경하였다. 그리하여 그 땅을 치카쓰아스카(近飛鳥)라고 한다. 야마토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오늘은 여기에서 머무르고 祓禊를 하고 내일 가서 신궁을 참배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그 땅을 도오쓰아스카(遠飛鳥)라고 한다. 그리고 이소노카미(石上)신궁에 가서 천황을 알현하여 이미 평정하고 왔다고 아뢰었다. 이에 안으로 불러들여 만났다. 12)

위의 두 전승에서는 야마토로 돌아가기 전, 또는 신궁에 들어가기 전, 즉 중요한 일을 앞두고 미소기를 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자나기의 미소기 역시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삼귀자에게 각각 다스릴 나라를 나누어주는 중요한 행위 앞에 미소기가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자나기의 미소기 전승을 통해 미소기가 행해지는 기본 조건이 ‘게가레’임을 알 수 있었는데, 츠아이 천황기와 리츄 천황기 역시 미소기를 통해 씻어내야 할 게가레를 찾아볼 수 있다. 각각의 미소기에 등장하는 게가레의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고사기』	게가레의 원인
[上卷] 이자나기의 황천국 방문	황천국으로부터의 게가레
[中卷] 츠아이(仲哀) 천황기	야마토(大和)에 돌아갈 때, 태자가 죽었다고 위장했던 것에 대한 게가레
[下卷] 리츄(履中) 천황기	신궁에 들어가기 전 하야토(隼人)를 죽인 것에 대한 게가레

표 1 『고사기』에 등장하는 미소기 전승에서 ‘게가레’의 원인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사기』에 등장하는 미소기는 모두 ‘죽음’과 연관된 게가레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게가레는 죽음으로 인한 것만 있을까. 신미진(2015)¹³⁾은 헤이안시대 작품에 나타난 게가레를

12) 青木和夫 외(1983), 『日本思想大系1 古事記』, pp.246-250, 岩波書店
번역문은 박신영 박사학위 논문에서 인용함 (『『古事記』 및 『日本書紀』에 나타난 바다와 미소기(禊)』 (2017), pp.139-140, 경희대학교)

분석하여 ‘죽음’과 ‘출산’이라는 게가레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해보아 게가레 역시 그 시대에 맞추어 변화하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죽음’ ‘출산’이라는 것이 갖는 공통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죽음’이라는 것은 현대에 와서는 그 원인 등에 대해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밝혀지고는 있지만, 사후 세계 등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도 장례식을 다녀오면 일본에서는 소금으로 씻어내는 등의 습관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출산’이라는 것은 그 원인과 과정 등이 지금은 의학적으로 거의 밝혀져 불임치료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 때에 ‘출산’은 더 이상 게가레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볼 때 ‘게가레’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데,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해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3.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오쿠사레 신과 『고사기』의 이자나기 전승에서의 ‘미소기’

3.1 오쿠사레 신의 등장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이사 가던 중, 길을 잘못 든 치히로네 가족이 버려진 테마파크처럼 생긴 신들의 영역에 들어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신들이 먹을 음식을 제멋대로 먹어버린 치히로의 부모는 돼지로 변한다. 홀로 남겨진 치히로는 살아남기 위해 신들의 온천인 유야(油屋)의 주인인 유바바와 계약을 맺고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된다. 오쿠사레 신¹⁴⁾은 치히로가 유바바와의 계약에 의해 ‘센’이 된 후 처음 담당하게 된 손님이다.

오쿠사레 신은 그 이름에서의 ‘쿠사레’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악취와 진흙투성이의 모습이였다. 누구도 다가가고 싶어 하지 않는, 씻어내야 하는 ‘게가레’로 가득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욕장으로 들어선 오쿠사레 신이 뜨거운 물이 가득 담긴 욕탕에 들어가고 물을 계속 쏟아 붓지만, 진흙이 넘쳐날 뿐 좀처럼

13) 신미진(2015) 「일본 헤이안 시대의작품에나타난‘게가레(穢れ)’ 연구 -생사의례와 관련하여-」, 『일본연구』 제63호, pp.241-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14) 작품 속에서는 구사레 가미(クサレ神), 오쿠사레 사마(オクサレ様)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오쿠사레 신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 센이 가시처럼 찢려있는 자전거 핸들을 발견해서 잡아당기니 거기서 대량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온다. 쓰레기를 모두 쏟아낸 오쿠사레 신은 노인의 얼굴로 변하는데 유바바는 이를 ‘이름 있는 강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한다. 노인의 얼굴을 한 용의 모습으로 변모한 오쿠사레 신은 센에게 귀중한 ‘쓴 경단(ニカ団子)’을 준다. 그리고 진흙이 씻겨내려 간 자리에는 사금이 남아 있다. 쓰레기라는 게가레를 씻어낸 결과 오쿠사레 신은 이름 있는 강의 주인으로 변모하고, 결과적으로 쓴 경단과 사금 같은 귀중한 것이 남은 것이다.

3.2 오쿠사레 신 에피소드와 이자나기의 ‘미소기’전승과의 유사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쿠사레 신의 입욕 전후의 과정을 분류해보자면, (1)더러운 ‘게가레’로 뒤덮인 상태로 등장하고, (2)더러운 ‘게가레’를 씻어낸 후에는 귀중한 것이 남으며, (3)오쿠사레 신 자신은 입욕에 의해 오쿠사레 신이 ‘이름있는 강의 주인’이라는 귀중한 존재로 변모하는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고사기』에서 이자나기의 미소기 전승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자나기의 미소기는 미소기에 앞서 게가레가 무엇인지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지, 게가레로부터 생성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이후 회복 과정과 결과물이라는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항목별로 이자나기의 미소기 전승과 오쿠사레 신 에피소드를 비교 분석한 것이 다음 표2이다.

『고사기』 이자나기의 ‘미소기’	구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오쿠사레 신
‘나는 매우 더러운 나라에 다녀왔다’	게가레 인지	오쿠사레 신이 센을 옮겨 자전거 핸들 쪽으로 이끈다
황천국 방문으로 인한 ‘게가레’에 의해 생겨난 신	게가레에서 생성	진흙, 악취
게가레의 화를 고치기 위해 생성된 신들	회복	쏟아낸 쓰레기
와타쓰미 3신 · 쓰쓰노오 3신	결과 1	사금
삼귀자	결과 2	쓴 경단
伊耶那伎神 → 伊耶那伎大御神	결과 3	오쿠사레 신 → 이름 있는 강의 주인

표2 『고사기』의 미소기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오쿠사레 신 에피소드 비교

오마가쓰히노카미라는 두 신이다. 이에 대비되는 오쿠사레 신의 게가레로 인한 생성물은 진흙과 악취라 할 수 있다. 순식간에 음식을 썩게 만들 정도의 악취와 물을 쏟아 부어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흘러내리는 진흙은 그 자체로 게가레인 것이다.

3.2.3 회복 과정

『고사기』에서는 게가레로 인해 생성된 신들 다음으로 게가레의 화를 고치기 위해 생성된 신들인 가무나오비노카미(神直毘神), 오나오비노카미(大直毘神), 이즈노메(伊豆能売)가 등장한다. 이 과정을 게가레로부터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는 쓰레기더미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대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가의 약재가 듬뿍 들어간 물을 쏟아 부어도 쉽게 씻기지 않던 게가레는 센이 잡아당긴 자전거 핸들을 시작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쏟아지고, 그 후 부풀어 올라 있던 오쿠사레 신의 몸이 바람 빠진 듯 줄어든다. 쓰레기가 쏟아지는 이 과정이 오쿠사레 신이 강의 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3.2.4 미소기의 결과

『고사기』에서 이자나기가 행한 미소기의 결과물이라 하면, 이후 전승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와타쓰미 3신·쓰쓰노오 3신과 삼귀자를 들 수 있다. 특히 삼귀자는 이후 등장하는 삼귀자의 분치에 관한 전승을 비롯하여, 향후 전승 전개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는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 회복 과정을 겪은 후, 진흙으로 넘치던 바닥에는 사금이 남고, 센의 손에는 쓴 경단이 쥐어진다. 쓴 경단은 후에 괴팍하게 변하는 가오나시¹⁸⁾를 원래대로 되돌리기도 하고, 죽음에 직면한 하쿠¹⁹⁾를 살리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재료로 등장한다. 또 결과 중 마지막으로 미소기를 행한 당사자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고사기』에서는 미소기 이전에는 이자나기노카미(伊耶那伎神) 혹은 이자나기노미코토(伊耶那伎命)로 표기되던 것이 미소기 후에는 이자나기노오미카미(伊耶那伎大御神)로 격상된 것을 알 수 있다.

18) 유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존재로 손님으로 착각한 센이 문을 열어줌으로써 유아에 들어온다. 이후 닥치는 대로 음식이나 종업원들을 먹어치우며 괴팍한 존재로 급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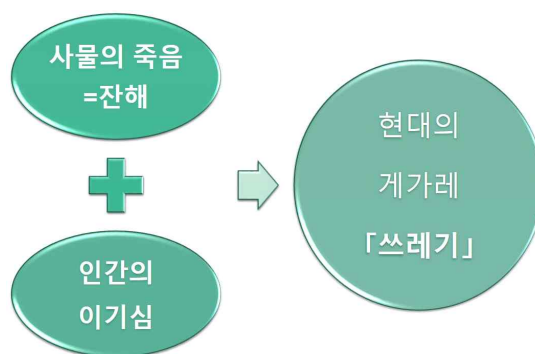
19) 센이 신들의 세계에 들어와 처음 만난 존재로, 센이 난관을 헤치고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기까지 다양한 도움을 준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는 모두가 피하던 오쿠사레 신이 목욕 후에는 ‘이름 있는 강의 신’으로 변모하여 모두의 배움을 받으며 떠나간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가레에 대한 인지, 계가레에서 생성되는 것, 회복 과정과 결과로 나타나는 구조가 『고사기』에 등장하는 이자나기의 미소기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오쿠사레 신이 목욕재개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오쿠사레 신의 ‘계가레’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이름 있는 강의 신이 오쿠사레 신의 모습이 된 것은 몸속에 가득 찬 쓰레기 때문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쓰레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미소기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쓰레기더미는 오쿠사레 신이 씻어내야 할 ‘계가레’라고 할 수 있



는데, 오쿠사레 신은 자신의 계가레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듯, 물에 빠진 센을 건져 올려 자전거 핸들 쪽으로 인도한다. 쓰레기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사물, 즉 죽음을 맞이한 사물의 잔해라고도 할 수 있다. ‘강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심코 버리는 인간의 이기심은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좀처럼 해결 혹은 해명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즉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표현된 쓰레기는 죽음을 맞이한 사물의 잔해임과 동시에 해명하기 어려운 현상이 섞인 현대의 ‘계가레’로써 그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미소기 전승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계가레’를 씻어내는 행위인 ‘미소기’라는 것이 현대 일본 문화 지변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

4. 나가며

본 논문에서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신화적 요소 중 특히 오쿠사

레 신 에피소드에 나타난 목욕재계의 과정을 미소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처음 등장할 때의 오쿠사레 신은 모두가 다가가기를 꺼려하는 악취와 진흙투성이의 모습이다.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인 센의 활약으로 오쿠사레 신 안에 있던 수많은 쓰레기를 쏟아내자 오쿠사레 신은 존귀한 존재의 모습으로 변모한다. 또, 진흙이 씻겨 내려간 자리에는 사금이 남고, 오쿠사레 신의 회복을 도운 센에게는 쓴 당고라는 귀중한 것이 남는다. 이러한 구조는 게가레를 씻어냄으로써 고귀한 신들이 생성된다는 미소기 전승의 구조와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타나는 오쿠사레 신 에피소드를 미소기의 현대적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미소기의 과정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전승으로는 『고사기』에 수록된 이자나기의 미소기 전승이 있다. 이자나기의 전승을 통해 미소기 행위의 전제조건으로 게가레가 제시되고, 미소기 행위의 결과로 고귀한 신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자나기의 전승 이외에도 『고사기』에는 미소기가 두 차례 더 등장한다. 중권의 츠아이 천황기와 하권의 리츄 천황기에서 각각 등장하는데, 두 전승에서도 역시 죽음과 연관된 게가레가 미소기 행위에 앞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소기 행위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게가레는 죽음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 게가레의 대상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안에서는 현대의 게가레가 ‘쓰레기’의 형태로 등장하는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게가레 관념은 현대 문화 속에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고귀한 것이 나타난다는 구조를 통해 미소기가 현대적 재생산 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미소기’를 염두에 두고 제작한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보다 일본의 현대 문화 저변에 게가레와 미소기의 관념이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내는 일례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青木和夫 外(1983), 『日本思想大系1 古事記』, 岩波書店, p.36.
- 西条勉(2009) 『千と千尋の神話学』 新典社
- 宮崎駿(2001) 『千と千尋の神隠し』 長編アニメーション
- 宮崎駿(2001) 『スタジオジブリ絵コンテ全集13 千と千尋の神隠し』 徳間書店
- 김정희(2014) 「설화 <구복여행>과의 비교를 통해 본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치히로의 성장과그의미」 『문학치료연구』 제33집, 한국문학치료학회, pp.229-267.
- 신미진(2015) 「일본 헤이안 시대의작품에나타난‘게가레(穢れ)’ 연구 -생사의례와 관련하여-」, 『일본연구』 제6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p.241-270.
- 안중혁(2004) 「애니메이션에 나타나는 신화적 기능 :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千と千尋の神隠し) 중심으로」 『디지털영상학술지』 1호, 한국디지털영상학회, pp.215-230.
- 이혜선(2006)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 채움에서 비움으로-」 『공연과 리뷰』 55, 현대미학사, pp.229-232.
- 표정희, 이태구(2016)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다원적 해석」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42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pp.81-104.

논문 투고 일자 : 2018. 11. 30.
논문 심사 일자 : 2019. 0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9. 02. 01.

<要旨>

『千と千尋の神隠し』の「オクスレ神」の齋戒沐浴の過程に見える神話的な要素
- 『古事記』の伊耶那伎命の「禊」伝承の観点から -

朴信映

2001年公開されたジブリスタジオの『千と千尋の神隠し』はベルリン映画祭やアカデミ賞で受賞するなど、世界的にその作品性が認められた。神々の温泉であったり、様々な姿をしている神々が登場したり、その背景だけでも漠然と神話・伝承などの古典との関連性がうかがえる。本論文では、作品の中でも特に、オクスレ神の話からうかがえる禊との関連性について考察した。最初はみんなから避けられる、悪臭と泥まみれの姿で登場するが、ゴミという穢れを除去することにより、オクスレ神は尊い存在へと変貌する。また、泥が洗い流された後には砂金が残り、千には貴重なニガ団子が与えられる。このような構造は、禊で穢れを除去した後は高貴な神々が生成されるという『古事記』のイザナギの禊と類似している。時代につれ変化してきた穢れ概念は、現代文化の中でも継続して影響を与えていて、それを除去することで高貴なものが現れるという構造から禊が現代的な再生産を成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

Consideration on Mythological Elements in Process of Conspiracy and Bathing of
the God Okusare of *Sen and Chihiro's Spiriting Away*
- From the perspective of Misogi by god Izanagi in the Kojiki -

Park, Shin-Young

Sen and Chihiro's Spiriting Away was produced in 2001 by Studio Ghibli and gained global acceptance when it won awards at the Berlin Film Festival and the American Academy Awards. The hot springs for gods, the appearance of various gods, and the background itself show vague relationships with classic literature such as myths and traditions. In this thesis, we examine the relevance of *Sen and Chihiro's Spiriting Away*, especially in regard to Misogi, which can be seen in the story of Okusare. At first, the god appears as a stinking, muddy shape that is avoided by everyone, but when the dirt and garbage are removed, Okusare is transformed into a precious being. In addition, after the mud is washed away, gold dust remains, and he gives a valuable "Nigadango" to the Sen. This structure is similar to Izanagi in the Kojiki in which deities are generated after removal of clouding with crow. The concept of impurity that has changed with the times but has continued to influence contemporary culture, and it is a modern reproduction of this structure that noble things appear when it is removed.